

연천군-제5사단 안보현장체험 협약 체결

안보현장체험 5사단과 DMZ여행사와 손잡고 추진

연천군은 지난 3월 17일, 김규배 연천군수, 김창섭 연천군의회위원장, 육군 제5사단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관리 소재 열쇠전망대에서 연천군과 육군 제5사단 안보현장체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안보현장체험 사업의 추진 및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유롭게 안보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연천군은 안보체험자원의 체계적 정비와 통한 경쟁력 확보로 다른 지역의 안보체험객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여 연천지역으로 유치하고자, 열쇠전망대를 중심으로 안보현장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타당성 분석을 위한 시범투어 및 후속투어를 실시해 왔다.

육군 제5사단장은 "지난해 7월 28일, 80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투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8월부터 11

월까지 총 1,000여명을 대상으로 11차의 안보체험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안보체험 프로그램은 전차 및 병대대 군장비 시연회, 생활관 견학, 병영식 취식 등의 5사단 병영 체험과 열쇠전망대 철책선(남방한계선) 따라 걷기, 철책선 평화통일 열린 리본 달기, 군 초소 견학 등의 5사단 열쇠전망대 분단 체험으로 구성했다.

육군 제5사단에 따르면 "분단의 현장에서 현실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안내와 설명을 제공하며 화상실 등 체험객의 편의시설도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군에 따르면 "안보현장체험은 DMZ 안보체험 사업의 대표 모델로 발전시키고 일회성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체험상품으로 개발해



연천군은 지난 3월 17일, 김규배 연천군수, 김창섭 연천군의회위원장, 육군 제5사단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관리 소재 열쇠전망대에서 연천군과 육군 제5사단 안보현장체험 협약을 체결했다.

나갈 것이며 시범투어 등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쳐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것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DMZ여행사(대표 장승재)등과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양주역 옹벽구간 벽화사업 작품 공모

3월24일부터 28일까지 양주시청 직접 접수

양주시는 시 관문인 양주 역 주변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시의 미래상과 정체성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양주역 옹벽구간 벽화사업 디자인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한 작품공모에 들어간다.

대상구간은 양주역 전철옹벽 의정부방향(350m X 7m) 벽화 디자인으로 참가자격은 ▶시각 디자인 업체(한국디자인진흥원

에 신고를 필한업체) ▶대학교부설 디자인 관련연구소 ▶사단법인에 등록된 미술 협회 및 디자인 협회인 공모가 가능하다.

작품주제는 희망, 미래, 창조와 함께 양주시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이미지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를 작성 3월24일부터 28일한 시 공보전산과에 직접 방

문접수하면 된다.

작품이미지규격은 가로 700cm X 세로14cm(50:1축소)이며, 작품파일은 CD1장(PSD, EPS 또는 AI 파일)과 양주시 로고를 삽입 디자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보전산과 홍보담당부서(031-820-2130) 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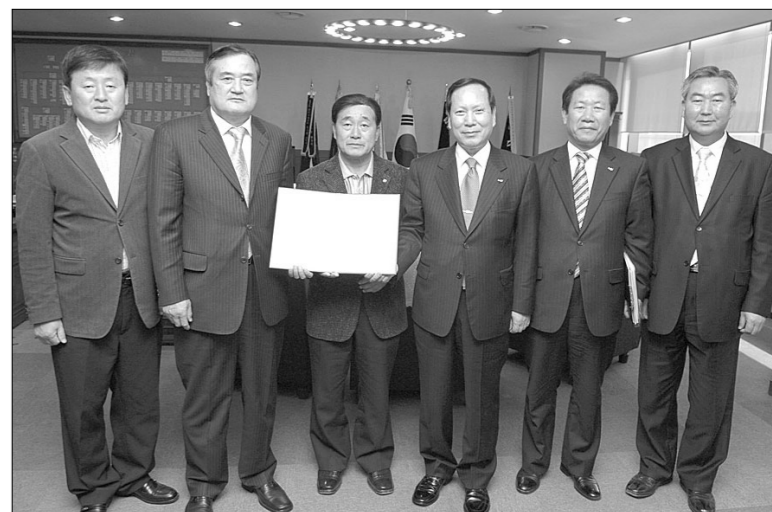
농촌지도자연합회 장학기금 전달

양주시 명품인재육성 위해 50만원 쾌척

양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회장 서정복)는 지난 17일 양주시청을 방문 시민과 함께 키우는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기금 50만원을 양주시청에 전달했다.

이날 서정복 회장은 양주시에 명품 인재를 많이 양성하여 양주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여러분야에서 시장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길 부탁하면서 앞으로도 희망장학재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양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는 462명으로 구성된 정예인력으로 공동학습포 운영, 농촌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 등 선진농업기술의 조기실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도활동 단체로서 태안 원유유출현장기동대,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 지원 등 지역 사회봉사에도 적극적



양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는 17일 양주시청을 방문 시민과 함께 키우는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기금 50만원을 양주시청에 전달했다.

으로 활동하는 등 참사랑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1830운동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연천교육청 초·중·고 학교보건담당자 협의회

경기도연천교육청(교육장 이재영)은 3월 14일 초·중·고 학교보건담당자 21명을 대상으로 학교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대한 협의회를 실시했다.

본 협의회는 보건 및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연천관내에는 정식 보건교사가 8교에 8명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13교에는 일반교사가 보건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서 실제 보건교사 배치율이 38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보건담당자 연수와 상호간의 정보 교환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담당 김우림 주사는 학교보건관리 연수에서 "학교에서는 학교 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연간, 월간,

주간계획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추진하고, 학년말에는 철저한 자체평가를 통해 다음해의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재량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체위 향상, 질병예방, 음주, 흡연과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광섭 학과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보건강사를 철저히 하여 질병 또는 신체 이상이 발견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건강 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체계를 확보하고 적기에 응급요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직원 대상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연수를 꼭



경기도연천교육청은 3월 14일 초·중·고 학교보건담당자 21명을 대상으로 학교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대한 협의회를 실시했다.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1일 8회 30초간 손씻기 운동(1830운동)을 전개하도록 했으며 비만학생 관리에 중점을 두어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서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사용증가 등 생활환경의 변

화로 인터넷, 게임 중독,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학습장애에 학생 예방관리를 위하여 학생 정신건강 설문조사 실시한 후 정밀검진 필요학생은 가정 및 전문가와 연계하여 조기 치료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상반기 양주웰빙시티투어 운영

4월5일부터 6월말까지 주말 양주시청 출발

시민이 만드는 행복한 도시 양주 건설을 위해 끊임없는 질주를 하는 양주시가 살아 움직이는 천연관광자원의 향기를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2008 상반기 양주웰빙시티투어 운영'에 들어간다.

양주웰빙시티투어 운영은 대중교통 운행이 비교적 어려운 관광지를 상호테마별로 연결하여 양주의 문화유적 및 관광명소를 보다 효율적이고 알차게 둘러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투어버스 운행은 오는 4월5일부터 6월말까지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운행되며 출발은 양주시청 정문과 양주역에서 한다.

토요일 운행 제1코스는 양주시청, 양주역 출발→송암천문대→필룩스 조형박물관→초록지기를 둘러보게 되며 제2코스는 양주시청, 양주역 출발→청암민속박물관→아트파크→자생수목원→트로이 목마 등을 둘러보게 된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일요일 운행 제1코스는 양주시청, 양주역 출발→대정동 테마파크→회암사지→허브빌 등을 둘러보게 되며, 제2코스는 양주시청, 양주역 출발→이교동→무호정→그린 아일랜드→관아지, 향교 등을 둘러본다.

이용은 양주시민 및 타 지역주민도 가능하며 안내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 정겨운 해설도 듣고 관광기념품도 타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갖는다.

신청자에 대하여는 상해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의 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투어집수는 온라인(약경우(http://tour.yangju.go.kr)) 전화예약(031-820-2121 ~ 3)번으로 사전에 하면 된다.

투어요금은 1인 2,000원으로 중식 및 입장료는 개인부담이며 요금감면은 주민등록상 만6세 이하 이 용금액에 대해 감면과 학생 및 주민등록상 경로대상자는 이용요금의 50% 감면한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양주시의회 "부당한 보상" 안된다

기업비상대책위원회 18일 규탄대회 예정

양주시의회 원대석의장은 13일 옥정신도시 보상대책과 관련 옥정노 기업비상대책위원회 등을 면담하고 기업인들이 처해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우위원장은 "기업대체 이전부지 확보와 제조업의 기계설비에 대한 단순 이전비는 부당한 보상"이라며, "개발계획승인고시일(2007. 3. 30)이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직원에게 대해 APT입주권 부여 및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원의장은 "인근시군이 사업시행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부터 지원받은 내역 등을 비교해 부당한 보상이 없도록 하겠다"며 "옥정신도시 보상대책에 있어 사회간접자본사업 등을 위해 양주시가 토지개발공사에 요구한 사항과 추가계회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의회는 옥정신도시 보상대책에 대해 지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현장중심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양주시청앞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토지공사 사무실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이색 군무원 - 제5보병사단 탁영오

부사관과 장교 거쳐 군무원으로 근무



입관 후 5사단으로 배치되어 열심히 군 복무를 하였지만 탁영오씨는 시련은 찾아왔다.

"정말 맑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하였기에 나름대로 장기복무 지원시 선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장기복무 선발이 되지 않아 큰 실망을 하기도 하였습니니다. 그래도 전역 때까지 장기복무자 이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였던 것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한 후 탁영오씨는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마침 군무원 시험공고를 접하게 되었다. 또한 그 시험 과목이 그동안 다른 분야의 공무원 준비를 할 때 공부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했고, 또 다른 군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군무원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탁영오씨는 "시험을 보는 동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컨디션이 좋아서 합격은 확실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예감이 좋았던 탁영오 군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합격 후 군과는 떨어질까 봐 걱정 수 없는 인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복무 지역은 장교로 전역하기까지 복무한 열쇠부대가 위치한 연천지역으로 지원을 하였고, 발령을 받고 보니 마침 또 5사단로 가게 되었다.

"5사단에는 정말 깊은 인연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교로 군 복무를 하던 시절,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 정착 등 많은 혁신을 하고 있었기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시 군무원이라는 또 다른 위치에서, 열쇠부대원으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나고 자라 서인지 군인은 나에게 항상 친숙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시하고 지라왔습니다."

육군 제5보병사단에서 군사보호구역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탁영오(31, 군무원 9급·사진)씨는 부사관과 장교를 거쳐 군무원으로 현재까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어려서부터 군인을 꿈꿔왔던 탁영오씨는 처음 군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1998년, 우연히 부사관 모집 공고 포스터를 보고 일말의 주저 없이 지원을 한 것이 탁영오 군과 첫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됐다.

입관 후 1사단에서 전자승무 부사관으로 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만난 소대장인 김시욱 중위(전역)가 또 다른 도전의 은인이 되었다. "당시 간부사관 출신으로 복무 중이던 김 중위님의 의연한 모습을 보며 저도 그와 같은 소대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김 중위의 조언을 많이 받으며 준비를 하였고, 그 결과 당당히 간부사관 장교로 입관을 하게 되었다. 통신 장교로

양주시 청렴 노블레스 오블리제

3월 청렴 사이버교육으로 시작



임충빈 양주시장은 2008년 3월의 시작을 '청렴 사이버교육'으로 시작했다.

양주시청(임충빈)은 2008년 3월의 시작을 '청렴 사이버교육'으로 시작했다.

임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기 '청렴사이버 교육' 과정을 수강하여 청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이행하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숭선수범이라는 뜻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숭선하여 청렴함을 보여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하도록 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직접 사이버 교육에 참여하는 사례는

청(농축산과)이 공동 참여,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고자 적극적,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바, 최고의 연천쌀 생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최고의 고품질쌀을 생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G+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사업'이다.

'G+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RPC, 군

청(농축산과)이 공동 참여,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고자 적극적,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바, 최고의 연천쌀 생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최고의 고품질쌀을 생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G+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사업'이다.

'G+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RPC, 군

필지수는 1,824, 연천군 전체 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최고의 고품질쌀을 생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G+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사업'이다.

'G+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RPC, 군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가장 중요한 고품질의 원료곡 생산을 위해 특히 농업인의 역할이 기대되어 재배기술 교육, G+라이스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생산이력제와 GAP(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인증, 농업인들이 꼭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심도 있게 교육했다"고 밝혔다.

김규배 연천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국민의 주산인 쌀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시대가 오고 있으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연천 쌀의 명성을 다시 찾는데 농업인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며, 'G+라이스 생산단지'의 성공적 수행을 당부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